10호

Kstat Report

2020년 8월 13일

부동산 관련 국민 의식 심층 분석

주택에 대한 국민 의식

- 주택은 '주거공간' 62% vs '주거공간이자 투자대상' 33%
- '주거공간' 호감 1위 경기도 / '투자대상' 호감 1위 서울 강남권
- 국민들, 현 주거지역 만족하나 투자대상은 서울 강남권 의견 일치
- 연령별로도 투자대상으로서 '서울 강남권' 선호 흐름 뚜렷

부동산 가격에 대한 인식

- 국민들, 한국 부동산 가격 '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'됐다고 생각
-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, '지금보다 오를 것' 54%
- 서울 부동산 가격, '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'됐다
- 서울 부동산 가격, '지금보다 오를 것' 57%

부동산 투자에 대한 국민 의식

- 국민들 부동산 바라보는 기본 관점, 혼란스러운 양상
-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도 부동산에 대한 '모순적 시각' 나타나
- 연령이 낮을수록 비교적 일관된 태도 보여

Kstat 케이스탯

trendresearch 온라인 서베이

일러두기

-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세부항목의 합이 100%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-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.
-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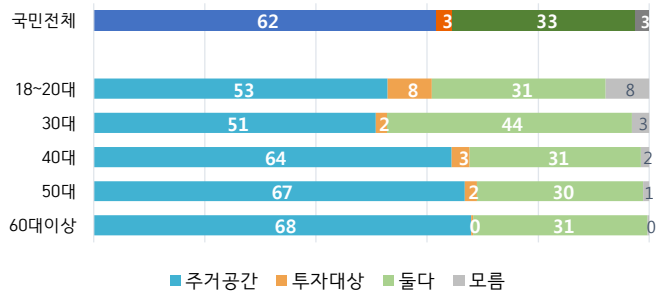
주택에 대한 국민 의식

주택은 '주거공간' 62% vs '주거공간이자 투자대상' 33%

- 우리 국민들 다수는 주택을 '주거공간'으로 생각하고 있지만, '주거공간이자 투자대상'이라는 국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  - "선생님께서는 평소 주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"라는 질문에 '주거공간'이라는 응답이 62%로 높게 나타났고, 다음으로 '주거공간이자 투자대상' 33%, '투자대상' 3% 순으로 조사됨
- 주목되는 부분은 2030세대의 생각으로, 이들은 상대적으로 '주거공간'이라는 응답이 낮고 대신 '투자대상' 또는 '주거공간이자 투자대상'으로 바라보는 비중이 높음
  - 18~20대는 모든 계층에 걸쳐 '투자대상'이라는 응답이 8%로 가장 높게 나타남
  - 30대는 '주거공간이자 투자대상'이라는 응답이 44%로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았음
-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전반적으로 '주거공간'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보수층은 상대적으로 '주거공간이자 투자대상'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
  - 이에 비해 진보층은 '주거공간'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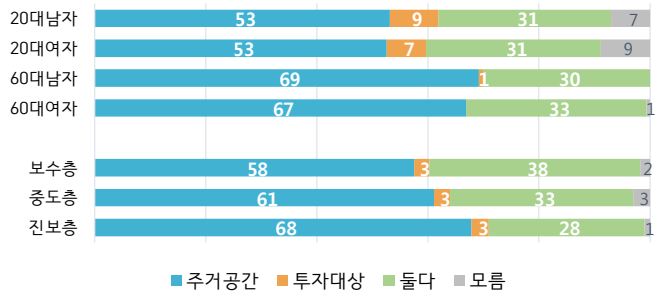
주택에 대한 인식 : 국민전체,연령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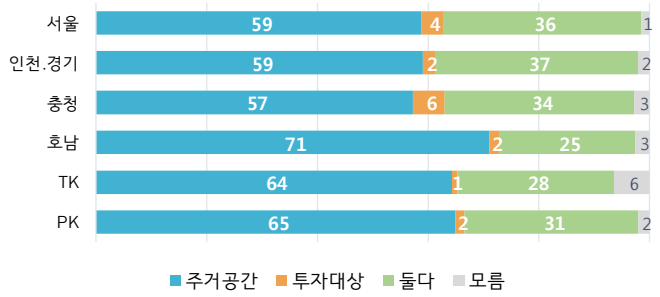
주택에 대한 인식 : 20.60대남녀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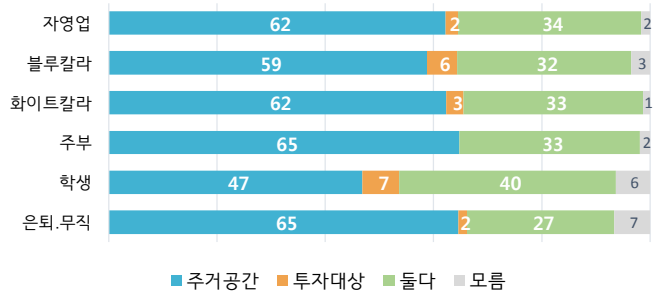
주택에 대한 인식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주택에 대한 인식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☑ 최근 2030세대의 주식·부동산 투자 열기가 주목받고 있는데, 이번 조사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포착됨

☑ 이른 바 '금수저.흙수저'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2030세대 중 상당수가 '금수저'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재테크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

✠ '주거공간' 호감 1위 경기도 / '투자대상' 호감 1위 서울 강남권

▸ 우리 국민들이 '주거공간'으로 가장 높은 호감을 갖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남

- "선생님께서는 평소 아래 각각의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 "주거공간"으로서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계세요?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호감이 높을수록 점수를 높게 응답해 주세요."라는 질문에 경기도가 5.4점으로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함

▸ 경기도(5.4점) 다음으로는 제주(5.3점), 서울 강남권(5.1점), 서울 강북권(4.9점), 부산(4.9점), 세종(4.8점), 대전(4.7점)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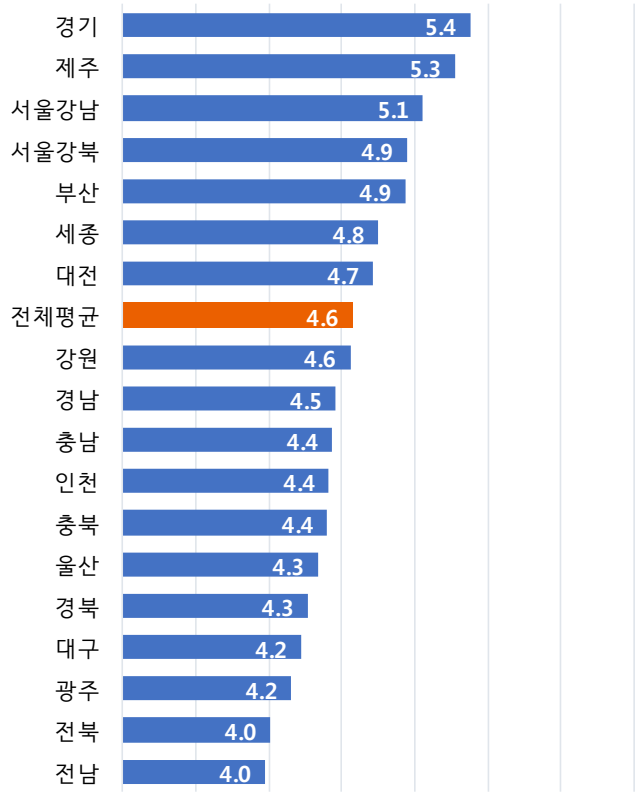
- 전국 평균은 4.6점에 그쳐 '거주공간'으로서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

▸ 한편, '투자대상'으로 가장 높은 호감을 표시한 지역은 서울 강남권으로, 호감도 6.3점을 기록해 다른 지역과 상당한 격차를 나타냄

- 투자대상 호감도는 전체 평균(4.5점)과 비교해 1.8점이나 높음
- 다음으로는 서울 강북권(5.6점), 경기도(5.5점), 세종시(5.2점), 제주도(5.1점), 부산(4.9점) 순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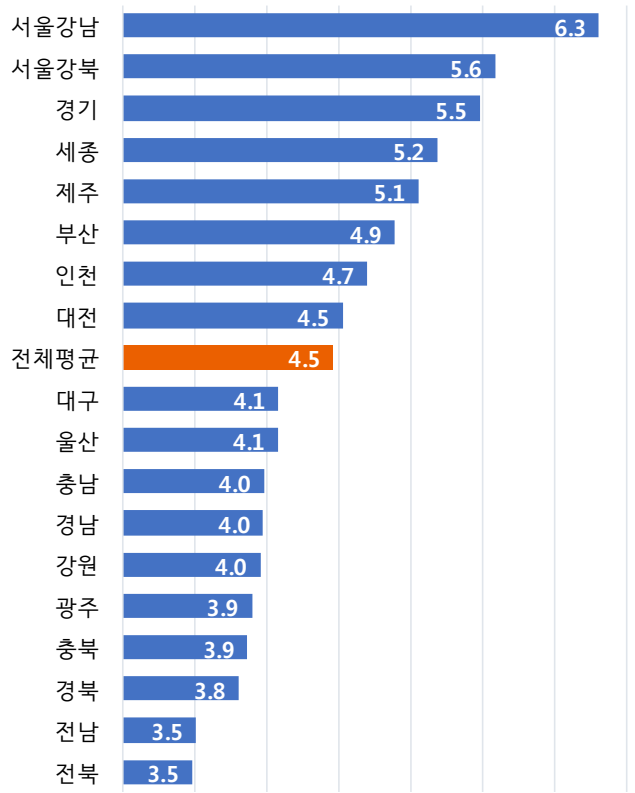
주거공간으로서 지역별 주택 호감도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점)



투자대상으로서 지역별 주택 호감도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점)



Kstat Point

☑ 서울 강남권의 경우 주거공간으로서 호감도는 3위였으나 투자대상으로서의 호감도는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함

☑ 국민들이 서울 강남을 바라볼 때 주거공간으로서의 매력도 있지만 투자대상으로서 매력을 더욱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됨

✠ 국민들, 현 주거지역에 만족하지만 투자대상으로는 '서울 강남권' 의견 일치

▸ 주거공간으로서의 지역별 호감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, 대다수 국민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거공간으로서의 호감도가 높음

▸ 서울 주민의 주거공간 호감도는 서울 강남권이 가장 높고, 충청권 주민은 대전이 가장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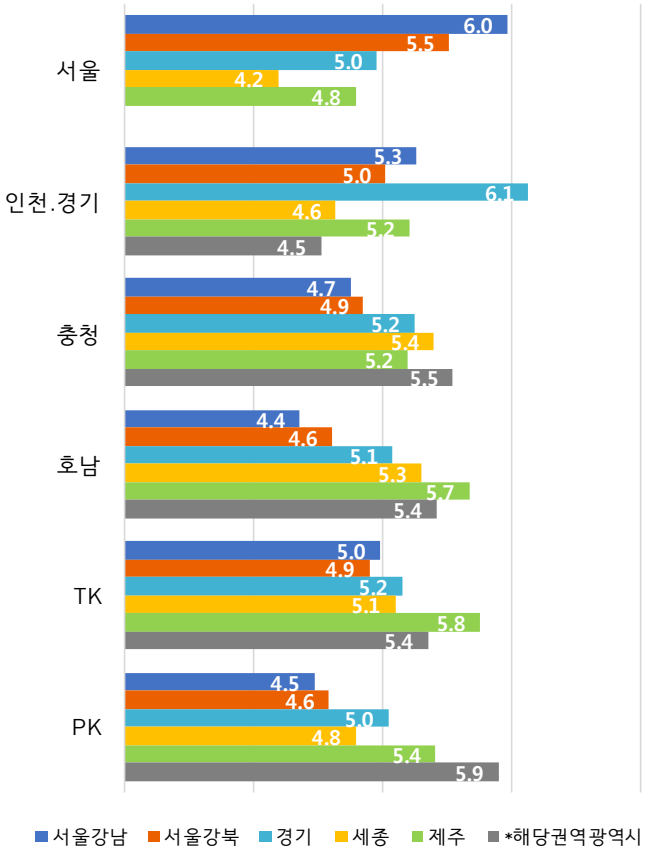
- 다른 지역에서도 주거공간으로서의 호감도 면에서 서울 강남권은 후순위로 밀리고, 해당권역 광역시 또는 제주도에 높은 호감을 표시하고 있음

▸ 이에 비해 투자대상으로서는 '서울 강남권'이 모든 지역 주민 모두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평점으로 1위를 기록함

- 투자대상으로서 서울 강남권에 대한 호감도는 서울주민이 6.8점으로 가장 높고, 인천.경기 주민 6.5점 등 모든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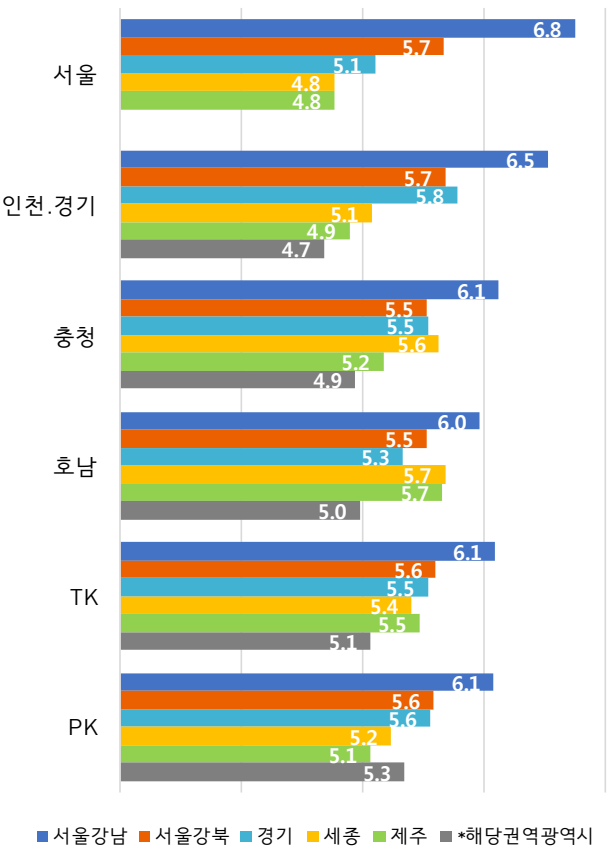
주거공간으로서 지역별 주택 호감도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점)



투자대상으로서 지역별 주택 호감도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점)



Kstat Point

☑ 현 주거지역에 대한 높은 호감도를 볼 때 국민들이 주택을 '주거공간'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른 바 '부동산 과열'은 발생할 이유가 없음

☑ 그러나 국민들이 주택을 '투자대상'으로도 바라보고 있고, '서울 강남권'을 독보적인 '투자처'로 인식함에 따라 서울 강남권을 향한 '부동산 매매 열기'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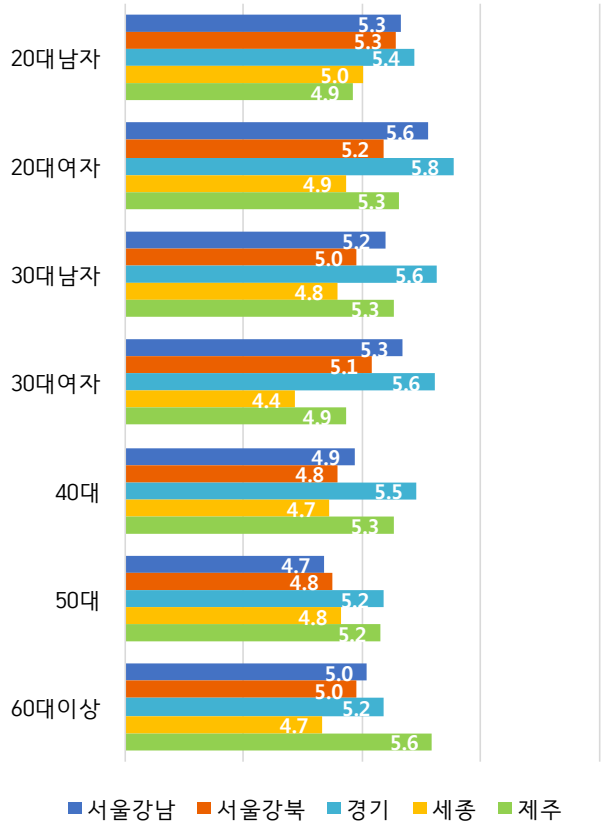
: 당장 서울 강남권 주택을 매입하면 좋고,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의 서울 강북권과 경기도 주택을 매입하지만 최종 매입 목적지는 서울 강남권으로 향하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돼 있음(잠재적 주택 매입자 포함)

✠ 연령별로도 투자대상으로서 '서울 강남권' 선호 흐름 뚜렷

- ▸ 연령별로 살펴보면 역시 주거공간으로서 호감도면에서 서울 강남권은 후순위에 있음
- ▸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주거공간으로서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한 곳은 경기도이고 서울 강남권은 2위 또는 3위에 있음
  - 60대이상 연령층은 제주도를 가장 선호함
- ▸ 하지만 투자대상으로서 호감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서울 강남권이 독보적으로 1위를 기록함
  - 서울 강남권에 대한 호감도는 6.0점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호감도와 상당한 격차가 있음
- ▸ 특히 앞서 주택을 바라보는 2030세대의 독특함('투자대상' 또는 '주거공간이자 투자대상'이라는 응답이 높음)과 투자호감 지역을 연관지을 때 이들 세대의 서울 강남권 주택 구입 열망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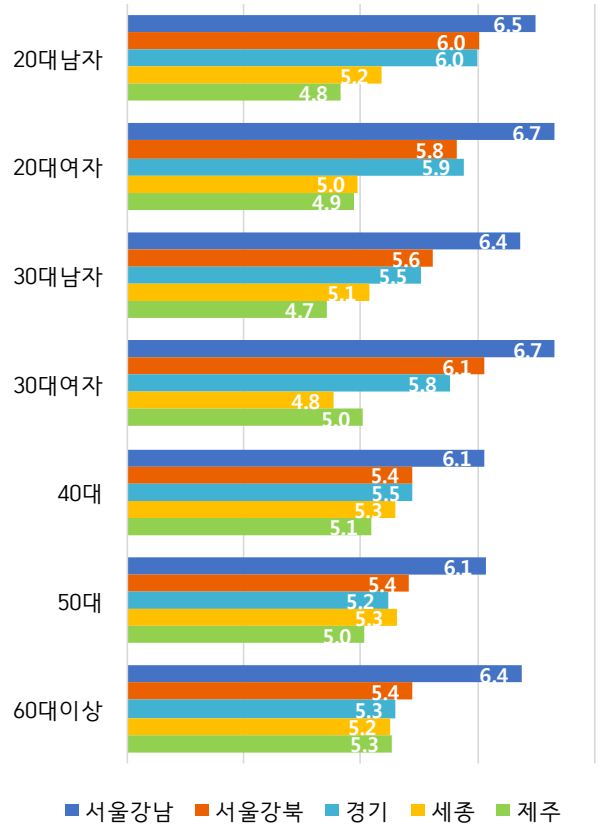
주거공간으로서 지역별 주택 호감도 : 연령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점)



투자대상으로서 지역별 주택 호감도 : 연령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점)



Kstat Point

☑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고,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함

☑ 이번 조사만 놓고 볼 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는 서울 강남권을 향한 '부동산 투자 소재'가 늘어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열기를 잠재우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(각종 부동산 과세 정책 효과는 제외한 전망임)

: 또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역시 주거 호감도가 높은 경기도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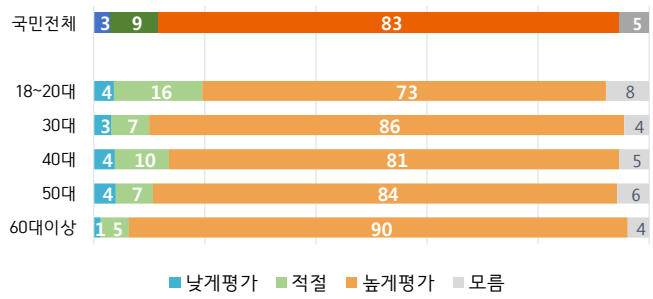
부동산 가격에 대한 인식

국민들,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'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' 됐다고 생각

-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해 국민들 절대 다수는 '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된 가격'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
- "최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합니다. 선생님께서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"라는 질문에 국민 중 83%가 '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된 가격'이라고 응답함
  - '적절한 가격'이라는 응답은 9%이고, '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된 가격'이라는 응답은 3%에 그침
- '높게 평가된 가격'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은 △60대 이상 △보수층 △인천.경기, 충청권 △자영업자 등임
- 이에 비해 '적절한 가격'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은 △18~20대 △진보층 △서울, PK △블루칼라, 학생 계층 등임
  - 18~20대의 경우 '적절한 가격'이라는 응답이 16%로 높고, 학생 계층 역시 20%로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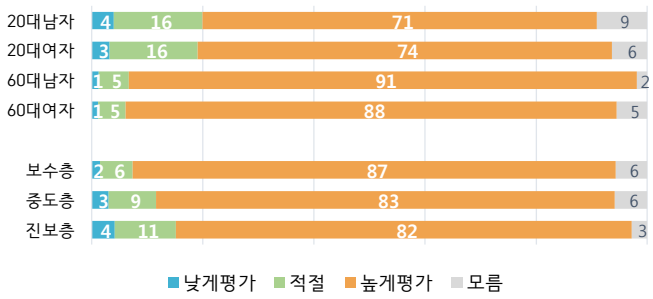
나라 전체 부동산 가격 적절성 : 국민전체,연령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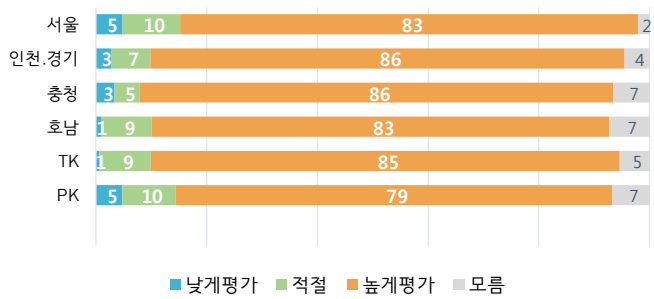
나라 전체 부동산 가격 적절성 : 20.60대남녀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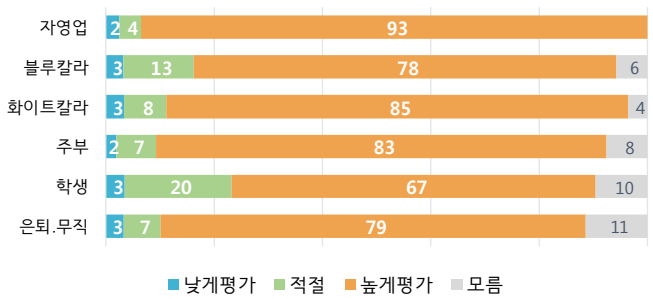
나라 전체 부동산 가격 적절성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나라 전체 부동산 가격 적절성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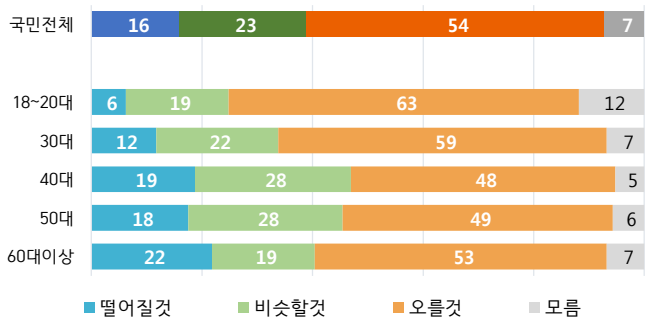


✠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, '지금보다 오를 것' 54%

- 국민들은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'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된 가격'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보다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
- "앞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세요?"라는 질문에 '지금보다 오를 것이다'가 54%로 가장 높게 나타남
  - '지금과 비슷할 것'이라는 응답은 23%이고, '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다'는 응답은 16%에 그침
- '지금보다 오를 것'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△18~20대, 30대 △보수층 △충청권 △블루칼라, 학생 계층 등임
- '지금보다 떨어질 것'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60대이상 △진보층 △호남 △화이트칼라, 주부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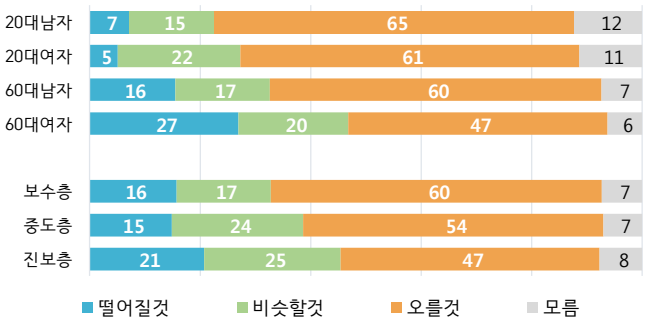
나라 전체 부동산 가격 전망 : 국민전체,연령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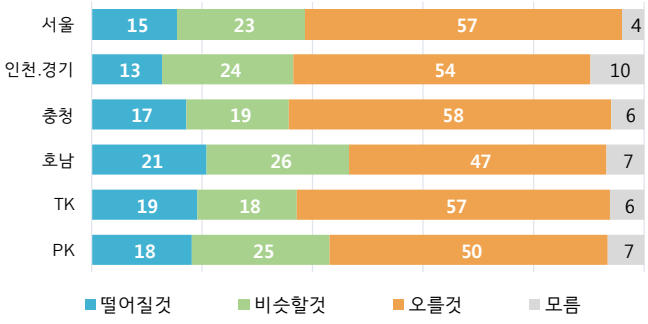
나라 전체 부동산 가격 전망 : 20.60대남녀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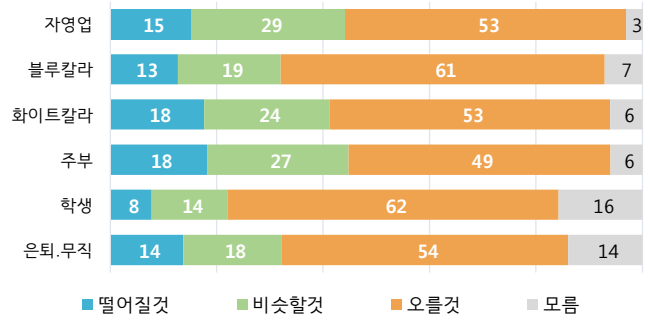
나라 전체 부동산 가격 전망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나라 전체 부동산 가격 전망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☑ 국민 다수가 부동산 가격이 '지금보다 오를 것'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쉽게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

: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'부동산 불패 신화'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데, 이러한 신화가 현실에서 부서지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신화는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 될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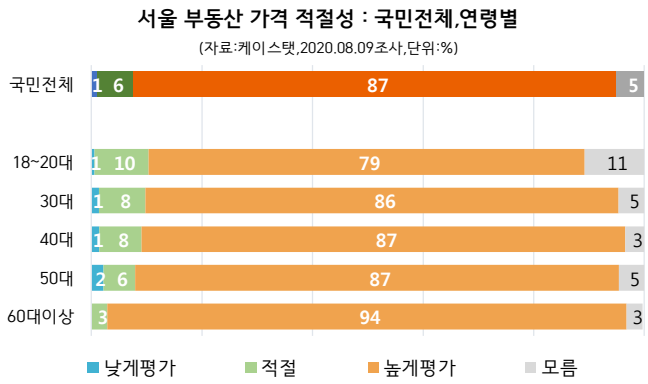
☑ 한편, 2030세대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부동산이 '지금보다 오를 것'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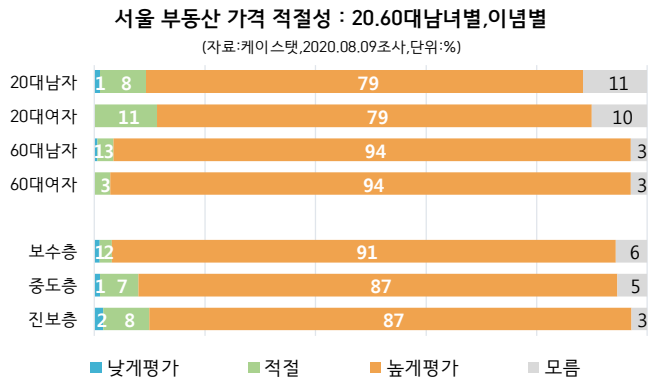
☑ 2030세대는 근래 들어 주식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등한 연령대로, 이제 막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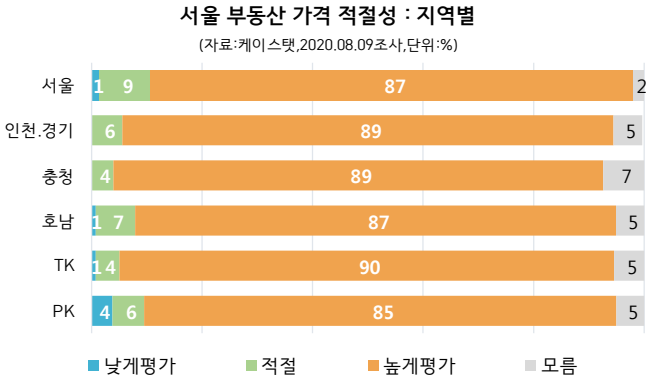
: 앞서 부동산 가격 적절성에서도 2030세대의 경우 '적절하다'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, 이는 지금 시점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도 늦지 않았고,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감의 표현으로 분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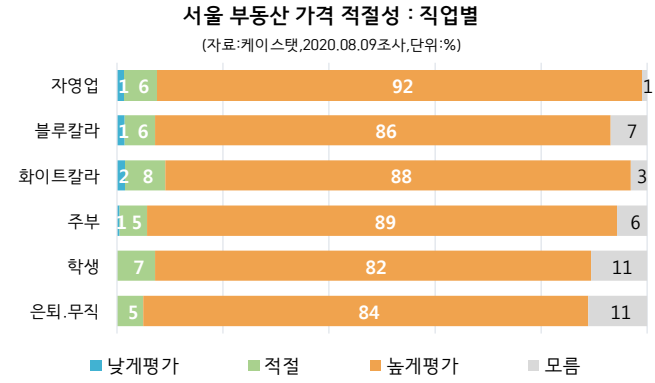
✠ 서울 부동산 가격, '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' 됐다

- 급등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에 대해 국민 절대 다수는 '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' 됐다고 생각하고 있음
- "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선생님께서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" 라는 질문에 국민 중 87%가 '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된 가격'이라고 응답함
  - '적절한 가격이다'는 응답은 6%이고, '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된 가격' 이라는 응답은 1%에 불과함
- '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된 가격'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△60대 이상 △보수층 △TK △자영업 계층 등임
- '적절한 가격'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18~20대 △진보층 △서울 △화이트칼라 계층 등임









Kstat Point

☑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

☑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고,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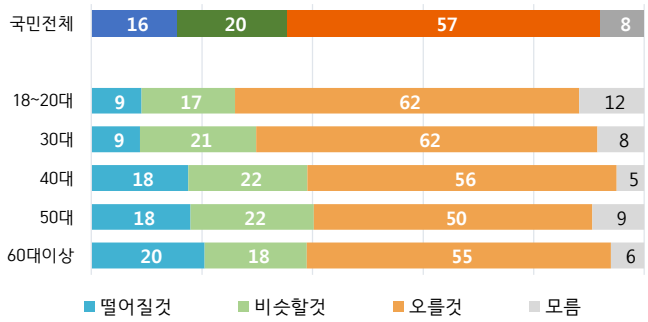
: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에는 다양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임

✠ 서울 부동산 가격, '지금보다 오를 것' 57%

- ▸ 국민들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'가치에 비해 가격이 높게 평가'됐음에도 불구하고 '지금보다 오를 것'으로 생각하고 있는데, 서울 부동산 가격 역시 마찬가지임
- ▸ 서울의 부동산 역시 '가치에 비해 가격이 높게 평가'되었다고 생각하지만 '지금보다 오를 것'이라는 전망이 57%로 과반수를 넘음
- ▸ '지금과 비슷할 것' 이라는 응답이 20%인 것을 볼 때 적어도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을 구입하면 손해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국민이 77%에 달하는 것임
  - '떨어질 것'이라는 응답은 16%에 불과함
- ▸ '지금보다 오를 것'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△18~20대, 30대 △보수층 △서울, TK △학생 등임
- ▸ '지금보다 떨어질 것'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60대이상 △진보층 △PK △화이트칼라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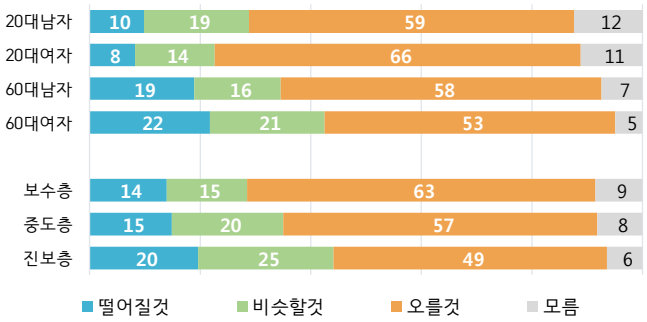
서울 부동산 가격 전망 : 국민전체,연령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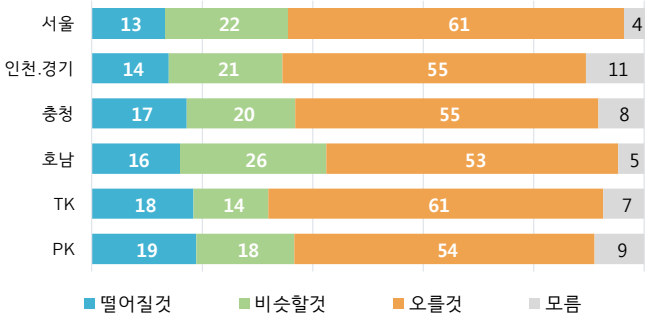
서울 부동산 가격 전망 : 20.60대남녀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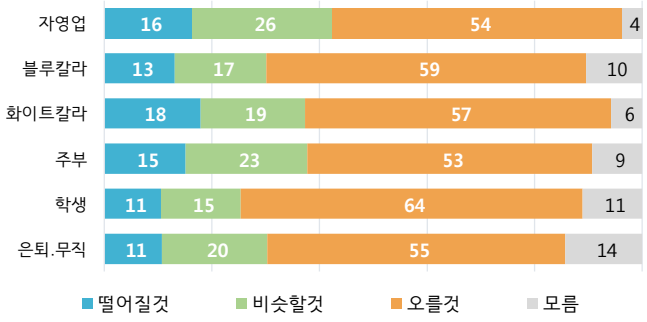
서울 부동산 가격 전망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서울 부동산 가격 전망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☑ 부동산 관련 국민 의식은 일반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/반대층 구분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

☑ 차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으로 일컬어지는 20대 여자, 30대에서 발생하고 있음

: 이들 연령층에서 전국 및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'적절'하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, '지금보다 오를 것'이라는 전망이 높은 점은 '진보층' 전체 흐름과 다르다는 지적임

: 또한 앞서 '투자대상'으로서 서울 강남권에 호감도 역시 이들 연령층은 매우 높았음

☑ 이러한 흐름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박탈감과 불만의 표현인지, 아니면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동의 시작인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임

부동산 투자에 대한 국민 의식

국민들 부동산 바라보는 기본 관점, 혼란스러운 양상

▸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양한 언론 보도와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음

-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흐름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상반된 두가지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각각 조사함
- 하나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할 경우 자칫 부동산 투자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

▸ 먼저 '부동산'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에 대한 질문을 두가지 주장으로 물어본 결과 매우 모순된 결과가 나옴

- '주택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무한히 만들 수 없는 한정된 공공재로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'는 질문에 '동의한다'는 의견이 71%로 나타남
- 그러나 반대 주장인 '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동산도 주식처럼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투자 대상이다'는 질문에 '동의한다'는 응답도 63%로 높게 나타남

▸ '부동산 시장'에 대한 관점에서는 비교적 일치된 의견이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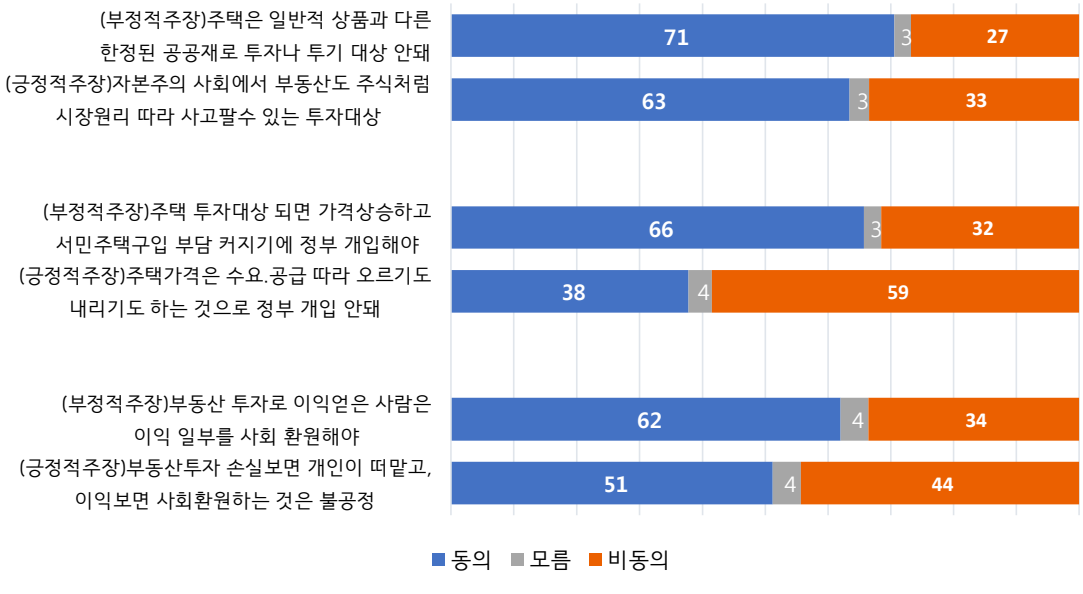
- '주택이 투자의 대상이 되면 가격이 상승하고, 결국 일반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이 커지는 피해를 주는 것이기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'는 질문에 '동의한다'는 응답이 66%로 조사됨
- 반대주장인 '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으로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'는 질문에 '동의한다'는 응답에서는 '동의한다'는 응답이 38%로 비교적 같은 결과가 나옴

▸ '부동산'에 대한 기본 관점의 연장선에서 '부동산 이익'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소 모순된 결과가 나옴

- '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이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'는 질문에 '동의한다'는 응답은 62%로 조사됨
- 반대주장인 '부동산 투자로 손실을 보면 개인이 떠맡고, 이익을 보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주장이다'는 질문에 '동의한다'는 응답이 51%로 역시 높게 나타남

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/긍정적 주장 동의 여부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✠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도 부동산에 대한 '모순적 시각' 나타나

▸ '부동산'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을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모두 모순된 태도가 나타남

- 보수층의 경우 '주택, 투자.투기대상 안돼' 주장에 67%가 동의하면서도 '주식같은 투자 대상'이라는 주장에도 73%가 동의하고 있음
- 중도층 역시 각각 69%, 61%가 동의하고, 진보층도 각각 81%, 62% 동의하는 등 모순된 응답을 보임

* 상반된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이기에 동일한 관점이라면 두 주장의 동의도는 합이 100이 되어야 함
* 만약 두 주장의 동의도 합이 100을 넘거나 넘지 않으면 모순된 태도로 판단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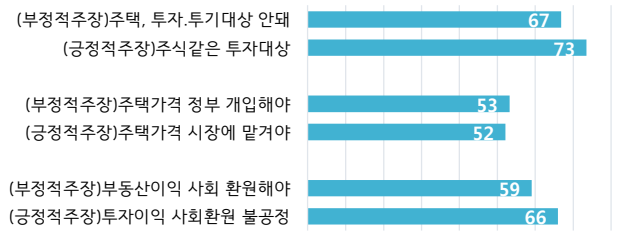
▸ 다음으로 '부동산 시장'에 대해서는 비교적 동일한 태도를 보임

- 보수층은 '주택가격 정부 개입해야' 주장에 53%가 동의하고, '주택가격 시장에 맡겨야' 주장에 대해서는 52%가 동의를 표해 두 응답의 합이 100%를 약간 넘음
- 중도층은 각각 66%, 37%로 두 응답의 합이 100%를 약간 넘고 있음
- 진보층 역시 각각 76%, 26%로 두 응답의 합이 100%를 약간 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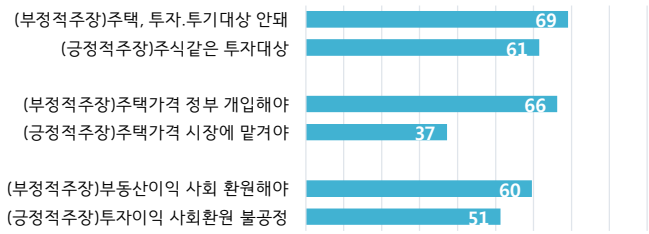
▸ 마지막으로 '부동산 이익'에 대해서는 모든 이념성향에서 다소 모순된 태도를 노출함

- 보수층은 '부동산 이익 사회 환원해야' 주장에 59%가 동의하고, '투자이익 사회환원 불공정' 주장에 대해서도 66%가 찬성해 다소 모순된 태도를 보임(두 응답의 합이 125%임)
- 중도층은 각각 60%, 51%로 역시 모순된 태도지만 보수층에 비해 다소 약함(두 응답 합은 111%)
- 진보층은 각각 75%, 36%로 역시 두 응답 합이 111%로 중도층과 유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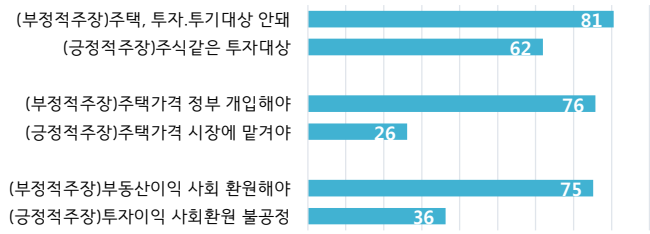
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/긍정적 주장 동의도 : 보수층



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/긍정적 주장 동의도 : 중도층



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/긍정적 주장 동의도 : 진보층



(자료: 케이스탯,2020.08.09.조사,단위:%)

Kstat Point

☑ 대부분의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동산 관련 정책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매우 중요함
: '부동산 공개념'으로 불리우는 진보적 가치관과 이에 반대하는 보수적 가치관인 '부동산 시장론'이 대표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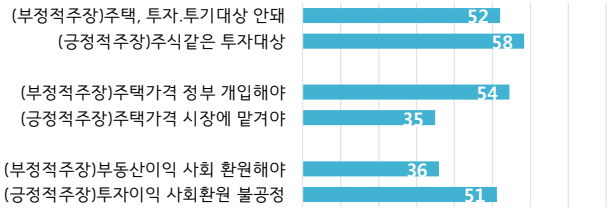
☑ 본 조사결과 부동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본 관점, 즉 가치관은 모순된 것으로 나타남
: 부동산을 '투자.투기대상 안된다'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'주식같은 투자대상'으로 생각하고 있음

☑ 이러한 이유는 현 정부가 자초한 것으로,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정책적 가치와 목표를 내세우기보다 단편적 대책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지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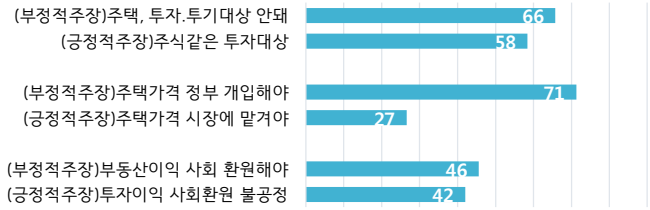
✠ 연령이 낮을수록 비교적 일관된 태도 보여

- 성/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부동산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갖고 있음
- 20대 남자의 경우 상반된 주장 3가지 각각의 동의도 합이 100% 주변에 있어 가장 일관된 태도를 보임
- 이에 비해 5060 남자의 모순적 태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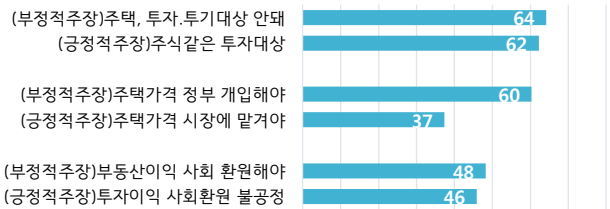
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/긍정적 주장 동의도 : 20대남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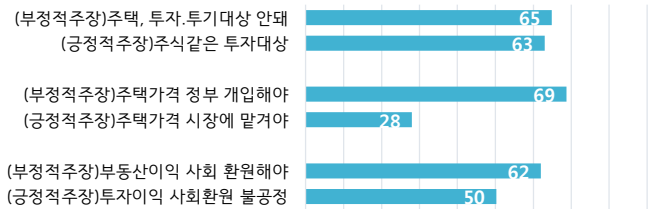
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/긍정적 주장 동의도 : 20대여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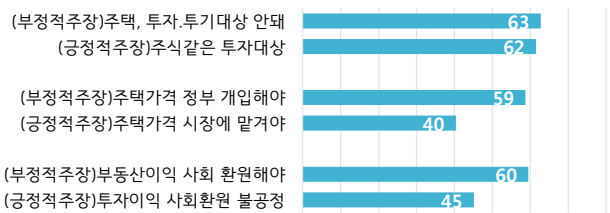
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/긍정적 주장 동의도 : 30대남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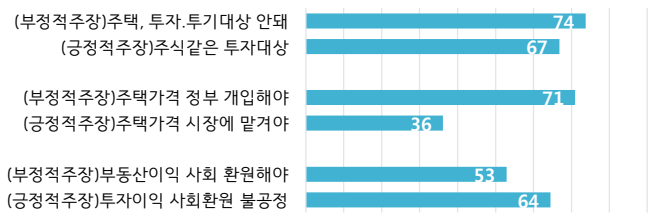
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/긍정적 주장 동의도 : 30대여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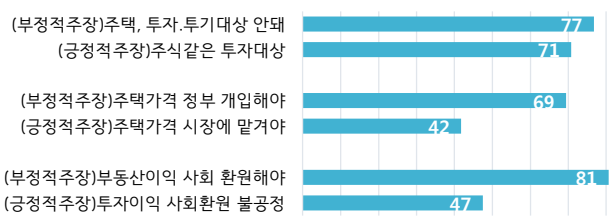
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/긍정적 주장 동의도 : 40대남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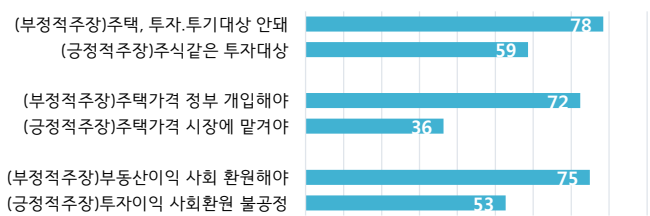
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/긍정적 주장 동의도 : 40대여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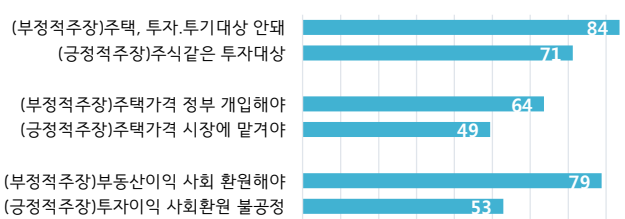
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/긍정적 주장 동의도 : 50대남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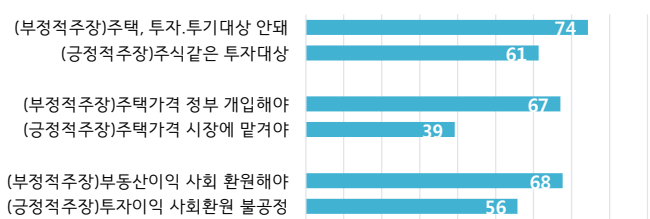
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/긍정적 주장 동의도 : 50대여자



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/긍정적 주장 동의도 : 60대남자



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/긍정적 주장 동의도 : 60대여자



(자료: 케이스탯,2020.08.09.조사,단위:%)

Kstat Point

☑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인가, 아닌가는 매우 중요한 가치관이자 정책 목표임

☑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'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투기세력을 용납하지 않겠다'는 정책 기조아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해 왔음

: 이러한 기조에는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점과 공정한 거래를 위한 투기세력 차단이라는 정책기조가 명확함

: 하지만 '다주택자들은 기회를 줄 때 주택을 매도하라', 또는 '실수요자들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관심을 가져달라'는 메시지는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공공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

: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지 불분명해지는 지점임

☑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 수석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는 이러한 불분명한 정책목표를 확대재생산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임

: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면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다주택 보유는 문제될 수 없음

: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'도덕성'과 '부동산 정책 신뢰'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처분을 강제하다 보니 잡음이 증폭되고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함

☑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임

: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가격 안정을 목표한다면 공급을 확대하고, 부동산에 쏠려 있는 유동성이 다른 곳(다른 투자처)으로 흐를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줘야 할 것임

: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 아닌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면 청와대 및 정부 고위직부터 다주택을 팔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부동산관련 세금의 확대, 공공주택 보급에 주력해야 함

: 더불어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강력하고 일관되게 알려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함

☑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보듯 현재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혼란스럽고 모순된 태도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임

: '주택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무한히 만들 수 없는 한정된 공공재로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' 주장 동의 정도 71%

: '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동산도 주식처럼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투자 대상이다' 주장 동의 정도 63%

: 부동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이러한 모순적 태도가 유지되는 한,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역시 모순된 메시지를 내놓는 한 부동산 급등 흐름을 잡기 힘들다는 전망임

조 사 개 요

조 사 기 간	2020년 8월 6일(목) ~ 8월 9일(일)
조 사 방 법	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
조 사 기 관	케이스탯리서치
표 본 추 출	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
표 본 틀	케이스탯리서치 K-패널
유 효 표 본	총 1,134명
표 본 오 차	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±2.91%p
가중치 부여방식	지역별, 성별, 연령별 셀 가중 부여 (2020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)

케이스탯은 조사·통계·컨설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,
매월 2회 "Kstat Report"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

- Kstat Report 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(Buzz)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.
- Kstat Report 는 사회, 경제, 생활,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.
- Kstat Report 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.
- Kstat Report 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.
- Kstat Report 는 매월 2, 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.
- Kstat Report 정기 구독을 원하시면, 문의 메일(report@kstat.co.kr)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

Kstat Report 11호(2020.08.27.)는

"고용불안 및 노후대책에 대한 인식"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